교사 제작·수업 적용 회고

수업: 2026년 10월 22일, 영월중학교 1학년 18명
작성: 2026년 10월 31일 / 제출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한 회고

이 글은 수업 후 기억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학생 발언은 정확한 녹취가 아닌 취지의 요약이며, 수업 당시 관찰 기록이나 학생 산출물과 구분합니다.

1. 학생의 생활에서 뉴스 읽기를 시작하다

중학생들과 뉴스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뉴스에 관심이 없다고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이 가는 이야기라도 배경이나 용어를 몰라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자신과 연결되지 않는 소식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로 뉴스를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의 특정 소식에 대해,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부산에 갈 기회가 많지 않은 자신들에게 같은 소식이 반복되니 오히려 약을 올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월의 뉴스는 알고 있는지 물었고, 지역뉴스를 접할 길이 없다는 답에서 플랫폼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2. 코딩을 몰라도, 수업의 필요를 설명하며 만들다

저는 코딩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AI에 수업 의도와 필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I가 구현 방법과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적절한지 판단하고, 더 쉽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설명과 구현 결과를 살펴보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바이브코딩으로 생각한 활동을 바로 구현해 보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 읽기와 분류에서 제목·내용 재구성, 취재원 검토, 모의 배송까지 구체화하면서 수업을 상상하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교사 제작·수업 적용 회고

지역의 이야기를 전국의 독자에게

처음에는 저 역시 영월뉴스라는 이유로 다룰 수 있는 이야기를 작게 생각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학교, 교통, 환경과 생활 문제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공적 사안이었습니다. 중앙의 뉴스를 지역에서 받아 읽는 경험에서 나아가, 지역에서 발견한 이야기를 전국의 독자에게 전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지역 간 경험을 비교하고 공적 사안을 함께 숙의하는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 첫 수업에서 만난 관심과 확인하는 모습

첫 수업에서는 영월 관련 뉴스를 읽고 주제별로 분류했습니다. 학생들은 영월에 뉴스가 이렇게 많았는지 놀라워했고, 특히 교복이나 학교 통폐합처럼 자신의 학교생활과 연결되는 소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스를 분류하는 과정에서는 제목만 보고 넘어가기보다 내용을 다시 읽고, 출처와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려는 모습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첫 수업에서 관찰한 장면이며, 지속적인 집중력이나 뉴스 이해 역량의 향상을 측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4. 흥미를 지속적인 읽기로 연결하기 위한 과제

학생들의 흥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누가 말하는지 살펴보고, 출처와 확인 범위를 판단하는 일은 뉴스를 자주 읽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뉴스 읽기 자체에 익숙해질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에 확인할 항목을 줄이고, 짧은 뉴스 한 건을 함께 읽으며 단계적으로 익히도록 보완하고 싶습니다. 읽기와 분류에 익숙해진 뒤에는 다른 지역에도 알릴 소식을 골라 재구성하고 모의 배송하는 활동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최종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AI가 아이디어를 구현하도록 도와주었지만, 학생에게 무엇이 어렵고 어떤 순서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일은 수업 담당자의 몫이었습니다. 출처·저작권과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책임을 함께 안내하면서 도구와 활동을 계속 개선하고자 합니다.